

PROGRAM NOTE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1878년 어느 봄 저녁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차이코프스키를 방문했다. 그는 당대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의 제자인 코텍이었다. 그날 차이코프스키에게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는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저녁 차이코프스키는 이 색채감이 풍부한 랄로의 바이올린 음악과 코텍의 연주에 깊이 매료되게 되어 그로부터 사흘 뒤인 당장 자신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작곡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차이코프스키는 창작의 기쁨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다.

그의 최대 후원자인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곡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악장이 완성됐고 내일 2악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의 음악적 영감은 지금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의식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곡의 순수한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단 25일 만에 초고속의 스피드로 이 협주곡을 작곡을 마쳤는데 당시 그가 얼마나 의욕에 불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폰 메크 부인은 차이코프스키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곡에 대해서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편 얼마 전 그의 피아노협주곡으로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크게 상심한 적이 있어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만큼은 그런 비평을 피하기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코텍의 충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작곡에 몰두하였다.

작품이 완성된 후 코텍에게 초연을 부탁하였으나 그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바람에 당대의 바이올린 ‘음악의 신’으로 추앙되고 있었던 거장 레오폴트 아우어에게 헌정하였으나 뜻밖에도 아우어는 “당신이 이 작품을 바이올린에 맞게 고치지 않는 한 그대로 연주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 그는 실망하여 되돌아갔고, 그 후 몇 년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881년 빈의 아돌프 브로즈키의 바이올린 솔로와 빈 필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그러나 그 날 오케스트라와 단 한 번의 리허설밖에 없어서 악보가 익숙지 않았던 단원들의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연주로 독주자와도 앙상블이 삐걱거렸다. 결국 비평가들은 “아만스럽고 불쾌한 음악”, “황당한 러시아 니힐리즘”이라고 혹평하였다. 그러나 초연자 브로즈키는 이 바이올린협주곡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곡을 모스크바, 독일, 미국 등의 연주 여행에서 계속 연주를 하였고 결국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게 되었고 바이올리니스트의 필수 레퍼토리로 정착되었다. 그러자 이 곡을 거부하였던 아우어마저도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연주를 하였다.

1악장 - Allegro moderato

조용한 서주와 함께 두 개의 주제가 제시되는데 여기게 도입 선율을 연주하고 10마디부터 제1주제를 다시 연주한다. 그리고 바이올린 카덴차가 연주되는데, 대단히 화려한 특징이 있다.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파위는 차이콥스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에 힘입어 폭발적인 파워를 느끼게 한다. 중요한 점은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독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인데, 차이콥스키는 기교적인 카덴차와 질주하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대비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최상급의 작곡가였다.

2악장 - Canzonetta Andante

관악기의 서주가 흐른 후 서정적인 주제를 바이올린이 노래하는데, 차이콥스키의 감수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무엇보다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음색 조절은 연주자의 능력을 가능하게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3악장 - Finale Allegro Vivacissimo

러시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활발한 음악으로 첫 주제는 민속 음악적인 요소에서 온 것으로 러시아 민속 춤곡을 연상시킨다. 두 번째 주제 역시 민속적인 색채가 있지만 여기에 집시 풍의 요소도 끼어 더욱 이국적으로 채색된다. 이 3악장은 그 당시 차이코프스키가 길거리에서 들었을법한 집시 음악의 자취가 발견된다. 여기에서 간박감 넘치는 러시아 민속 춤곡의 리듬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날레에서 특히 불꽃 튀는 듯한 음악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Rimsky-Korsakov | Sheherazade

러시아 국민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며, 근대 관현악법의 대가인 림스키코르사코프는 풍성한 울림과 다채로운 색채를 지닌 작품으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고 또 자주 연주하는 작품으로 교향 모음곡(Symphonic Suite) <세헤라자데>를 꼽을 수 있다. '세헤라자데'는 유명한 민화집인, 아라비안나이트 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여성인데 술탄 왕이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는 여성은 이후 모두 죽인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술탄 사리아르는 여성들이 불신과 부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첫날밤을 보낸 다음에는 죽이고 말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왕비 세헤라자데는 왕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천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술탄은 그 이야기의 재미에 이끌려 그녀를 죽이는 일을 하루하루 미루게 되었고, 결국 잔혹했던 자신의 맹세를 포기하게 되었다. 왕비 세헤라자데가 사리아르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는 이상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위해 왕비는 시인들의 시와 민요의 가사를 빌려 이야기를 짜 맞추었고, 그 내용을 들려주었던 것이다. 곡은 전체적으로 4악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표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출판한 악보에는 이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따온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제 1악장 - The Sea and Sinbad's Ship (바다와 신밧드의 배)

바다와 신밧드의 배전을 위협하며 우르릉대는 바다의 묘사. 힘차고 웅장한 사리알과 부드러운 세헤라자데의 테마가 어우러지고 흔들리는 듯한 태양의 리듬이 나타난다.

제 2악장 - The Legend of the Kalendar Prince (카렌달 왕자 이야기)

적막한 초원지대를 묘사하는 듯한 고적한 바순의 독주가 일품. 자유롭게 유머러스한 왕자의 모험 이야기에 사리알이 노여움을 품고 웃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 3악장 - The Young Prince and The Young Princess (젊은 왕자와 왕녀)

가장 인기있는 악장으로서 왕자와 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우아하고 이국적인 색채로 그려진다.

제 4악장 - Festival at Baghdad (바그다드 축제)

바그다드의 이교풍 축제와 해양의 높은 물결 뒤집히는 신드바드의 배를 묘사하고 있으며, 바다가 고요해진 후 사리알과 세헤라자데의 테마가 다정스럽게 얽히며 행복하고 화목한 생활을 암시하듯 조용히 끝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Rimsky-Korsakov
Sheherazade

SNU
SYMPHONY ORCHESTRA
CONCERT

2015년 9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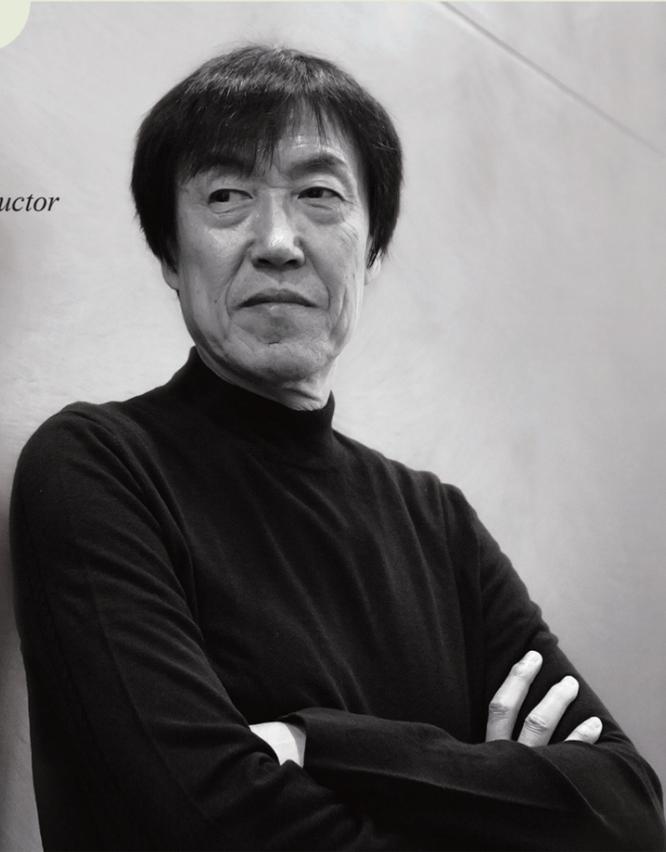
주최 서울대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석무료 : 문의 02-880-9320

Profile

지휘 **임헌정**

Hun-Joung Lim, Conductor



지휘자 임헌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청중과 비평가 모두를 사로잡으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바르토크, 베베른 등의 작품들을 초연하며 국내 클래식계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 일으켰으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를 시작으로 베토벤, 슈만, 브람스, 브루크너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 작곡가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동시에 꾸준히 음악계에 화두를 던져왔다. 특히 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국내 최초로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를 펼쳐내며 '말러 신드롬', '말러 붐'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대 사건을 만들어냈다.

'지휘대의 탐험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인물' 등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증명하듯 동아일보로부터 국내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최고의 지휘자'로한겨레신문이 기획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우경문화예술상', '서울음악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을 수상하며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을 증명하였다.

또한, 25년간 이끌어온 부친필에게 음악단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서울대 음대 졸업 이후 미국 메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대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그는, 귀국 후 서울대 작곡과 지휘 전공 교수로 30년째 재직하고 있다. 현재 코리안심포니 제5대 예술감독으로 새롭게 음악의 인생을 펼쳐며 또 다른 교향악의 역사를 시작하려 한다.

Program

차이코프스키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1악장 - Allegro moderato
2악장 - Canzonetta Andante
3악장 - Finale Allegro Vivacissimo



Intermission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Rimsky-Korsakov Sheherazade

제 1악장 - The Sea and Sinbad's Ship (바다와 신밧드의 배)
제 2악장 - The Legend of the Kalendar Prince (카란달 왕자 이야기)
제 3악장 - The Young Prince and The Young Princess (젊은 왕자와 왕녀)
제 4악장 - Festival at Baghdad (바그다드 축제)



지휘 **구모영**

Mo-Young Koo, Conductor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작곡과 지휘전공 졸업 동 대학원 지휘 수료
-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과정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중
-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겸임교수 역임
-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중
- 원주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역임
- 현재 천안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Profile

바이올린 **이은새**

Eun-Sae Lee, Violin



- 2004 음연콩쿠르 1위
- 2005 스트라드 콩쿠르 2위
- 2006 세종콩쿠르 1위, 소년한국일보 콩쿠르 1위
루마니아 야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영산아트홀)
- 2007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청소년음악제 협연 (하바로브스크 심포니 홀)
- 2009 한국일보콩쿠르 1위, 젊은이의 음악제 연주
- 2011 세계일보 콩쿠르 2위, 인천시향 제야음악회, UN모의회의 축하연주 협연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악장
- 2012 서울예고 제 50회 정기연주회 협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서울예고 영아티스트 콘서트 연주
- 2013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연주 (트리오 에파이노스)
- 2014 Spirit of SNU Strings IV 연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 사사 : 백주영